전북, '포항 멀티맨' 강상우 영입한다…이적료 11억+알파 ▶6면 | '마지막 FA' 정훈, 롯데와 3년 18억 사인 ▶3면

1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4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2022년 1월 6일 목요일
www.sportsdonga.com

베이징올림픽 한달 앞으로…팀 코리아의 난제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5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G-30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베이징동계올림픽 성적에 대해선 "금메달 1~2개 정도를 보고 있다. 물론 더 따면 좋다"고 밝혔다.
진천 |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1 팬데믹·서방국가 보이콧 곳곳 변수
2 60여명 태극전사 컨디션 관리 숙제
3 코스 영향 큰 썰매 종목 난관 예상
4 금 2·종합 15위권…목표 하향 조정

1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2베이징동계올림픽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2020도쿄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가운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까지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더 큰 공포가 엄습해서다. 미국, 영국 등 서방국가들이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도 예사롭지 않다. 우리로선 또 한번 껄끄러운 처지에서 올림픽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미다.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정확히 30일을 남겨둔 5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2022년 국가대표선수단 훈련개시식 및 베이징동계올림픽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외교적 보이콧 등 여러 이슈가 겹친 대회"라고 털어놓았다.

중국의 현지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데도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이 회장은 "비공개라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진 못하고 있다"며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베이징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를 통해서만 내용을 전달받았다. 우리 스스로 더 조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방역과 시스템 관리를 잘하고 있다. 선수들이 입국한 뒤에도 엄격하게 관리해 대회를 마칠 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을 전했다. 코로나19 여파로 100%의 환경에서 훈련을 진행하지 못한 태극전사들은 현지 사정도 정확히 알려지지 않은 탓에 걱정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경기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선수들의 사기가 꺾이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 7개 종목, 15개 세부종목에 참가하는 60여명의 태극전사들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올림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최우선 과제다. 이 회장도 "선수들이 어려운 상황에도 올림픽에서 자신의 실력을 펼치기 위해 묵묵히 훈련에 임하고 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관련기사 2면

진천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가스공사 '가드 콤비' 선두 KT에 '매운맛'

김낙현·두경민 40점·13AS 합작…팀 4연패 끊고 6위 DB 반게임차 추격



경기 초반 8-22까지 뒤졌지만 2쿼터 2점차…끈질긴 추격전
3,4쿼터 가드듀오 득점 폭발
KT 양홍석, 빛바랜 트리플더블

정관장 프로농구

연패를 끊겠다는 대구 한국가스공사 선수들의 투혼이 빛난 경기였다.

가스공사는 5일 수원 KT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4라운드 수원 KT와 원정경기에서 40점·13어시스트를 합작한 김낙현(22점·7어시스트), 두경민(18점·6어시스트) 등 주전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94-86으로 이겼다. 4연패를 끊은 7위 가스공사(13승16패)는 6위 원주 DB(13승15패)에 0.5경기차로 다가섰다. 2연패를 안은 KT(22승8패)는 선두를 유지했지만 2위 서울 SK(21승8패)에 0.5게임차로 바짝 쫓겼다.

주전 가드 정성우와 센터 하윤기가 부상으로 결장한 KT는 연패를 가장 경계했다. 정성우는 3일 DB전 도중 목 근육을 다쳐 당분간 출전하지 못한다. 하윤기는 담 증세 때문에 한 차례 쉬기로 했다. 서동철 KT 감독은 경기 전 "DB에 일격을 당했는데, 연패는 하지 말자고 독려했다. 정성우가 빠져 수비도 걱정되지만, 공격을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김영환을 선발로 투입했다"고 밝혔다.

외국인선수 앤드류 니콜슨이 허리 부상으로 빠져 있는 가스공사는 높이 싸움이 걱정이었다. 최근 홀로 코트를 지키고 있는 클리프 알렉산더(20점·13리바운드)의 체력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국내선수들의 한 발 더 뛰는 농구가 절실했다.

초반 분위기는 KT가 좋았다. 가스공사가 지역방어로 나왔지만 KT는 양홍석, 허훈, 캐디 라렌 등 베스트5에 포함돼 출전한 선수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깨면서 6분여 만에 22-8까지 앞섰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투지를 잃지 않았다. 경기 초반 선수들을 돌려 기용하며 체력을 아꼈고, 코트를 넓게 활용하는 농구로 꾸준히 추격해 2쿼터 막판 38-38로 균형을 되찾았다. 2쿼터를 43-45로 마쳤으나, 3쿼터 들어 김낙현과 두경민의 3점포가 터지면서 57-49까지 리드하기도 했다.

가스공사는 4쿼터 중반 국내 포스트 자원 이대헌(16점)이 5번째 개인 파울로 벤치로 물러났지만 가드 듀오가 힘을 내면서 KT에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가스공사는 경기 종료 1분여 전 84-82에서 두경민이 2차례 공격에서 홀로 4점을 몰아친 덕분에 88-82로 달아나며 승리를 예고했다.

한편 양홍석은 이날 28점·14리바운드·10어시스트로 생애 2번째 트리블더블을 작성했지만 팀의 패배로 빛을 잃었다. 양홍석이 2019년 1월 서울 삼성전에서 13점·12리바운드·12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로는 오랜만에 국내선수의 트리블더블이 나왔다.

▶ 관련기사 2면

수원 |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 가스공사 두경민(오른쪽)이 5일 수원에서 열린 KT와 원정경기 도중 상대 수비를 피해 패스를 시도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두경민-김낙현의 합작 40점 맹활약을 앞세워 94-86으로 선두 KT를 꺾고 4연패에서 탈출했다.
수원 | 김종원 기자 won@donga.com

